

[종합·해설]



5·18민주묘지 찾은 정치인들 하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 29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왼쪽부터), 순학규 전 대표와 한나라당 원희룡 새싹특별위원장 등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광주 남구 당원들 민주 성지서 추태

5·18묘역서 “강운태 복당 반대” 지도부 막고 몸싸움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당 지도부를 상대로 ‘민주성지인 5·18묘역에서 시위를 벌여 반쪽을 샀다. 민주당 광주 남구지역위원회 당원 30여명은 17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묘지(구 묘역)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 정세균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을 상대로 강운태 의원 복당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강운태 복당 반대” 구호와 함께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정 대표와 면담을 요구했고 집회를 막는 당직자들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말리던 강기정 의원이 당원들에게 먹살을 잡히기도 했다.

이에 주변에 있던 참배객들이 “신성한 5·18 묘역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시위대는 “합법적인 집회를 막지 말라”며 시위를 강행했다.

이렇듯 어수선한 가운데 참배를 마친 정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은 당직자들의 경호를 받으며 겨우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남구지역 당원들은 버스 앞을 가로막은 채 5분여간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계속 벌였다. 30여분만에 자진 해산했다.

남구지역 당원들은 당 지도부가 강운태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무소속 의원들의 복

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에 이날 지도부와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 의원의 복당은 50년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결사항전할 방침”이라면서 “강 의원을 복당시키지 않겠다는 정 대표의 확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참배객들은 “당내 문

제를 신성한 5·18묘역에까지 끌고 와야겠느냐”며 민주당 당원들의 항의시위에 눈살을 찌푸렸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도 “남구지역 당원들이 5·18묘역을 참배하러 온 정 대표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평화적으로 전달키로 했는데 몸싸움까지 벌일 줄 몰랐다”며 “특히 민주성지인 5·18묘역에서 당원들끼리 추태를 보이게 돼 유감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 광주 남구지역 당원 30여명이 17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에서 강운태 의원 복당 반대를 주장하며 정세균 당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다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래 對與 강경 모드... 격돌 예고

여야, 내달 임시국회 미디어법 충돌 불가피

민주, 정동영 복당 주류-비주류 갈등 가능성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일단 이 원내대표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강경 방침을 천명하면서 6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제3차 입법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원내대표가 사실상 비주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당선됐다는 점에서 주류 측과의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이 수로 밀어부친다면 실력자로서 나서서 등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재보선으로 여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확인된 만큼, 여론의 변화라는 상황을 전제로 기존의 여야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관련 법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3차 입법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또 이강래 원내대표 체제의 출범은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가 비주류 연합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류 측과의 상당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단 비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 친(親)정

동맹계 중심의 국민모임, 구 민주계 등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확정한 비주류계는 ‘파이’를 넓혀가며 입지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야투쟁의 선명성과 당의 변화, 쇄신을 내세워 주류측을 압박하며 복당을 키워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범정동맹계로 분류되는 이 원내대표가 당내 갈등의 ‘뇌관’인 정 의원 복당 문제의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복당 문제가 탄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주류측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면 17일 복당신청서를 내고 복당 투쟁을 위한 전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 원내대표 선출로 복당신청서 제출을 연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파른 여야 입법대치가 예고된 6월 국회를 앞두고 적진분열에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당장 양측 간의 충돌이 가시화될 공산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강래 “미디어법 강행시 죽기로 싸울 것”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7일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예상되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이 수로 밀어부친다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기로 싸워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의 18대 국회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영패한 4·29 재보선 결과는 잘못된 정책과 약

법을 개폐하고 쿼드수정하라는 뜻”이라며 “저희는 그런 국민의 뜻을 대변할 자격이 있으며 따라서 미디어법의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여야가 2차례의 ‘입법대치’를 치른 최대 쟁점법안인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주시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내 쟁점인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방치해두면 큰 문제가 생긴다”며 “당 내부

에서도 복당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 의원이 축하박수를 받고 들어올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며, 누군가 가고 역할을 하면 복당이 빨라질 수 있다”고 조기 해결 의지를 밝혔으나 복당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지역 정치권, 강기정 ‘광주시의원 물갈이’ 발언에 부글부글

○--지역정가를 발각 뒤집어 놓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의 ‘광주시장 제3의 인물론’과 ‘광주시의원 전원 물갈이’ 발언이 부각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강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광주시장 후보로 현재까지 언론에 거론되지 않은 관악·놀말만한 제3의 인물을 내세우는 방안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시의회가 일으켰던 수많은 분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내년 선거에서 시의원 전원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선거가 1년 남게 남은 상황에서 나온 ‘전원 물갈이’ 발언은 자칫 선거의 조기과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쫓아내기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반발했다.

광주시의회 강박민 의장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강 의원과 물갈이를 논의한 적 있는지”를 확인한 데 이어 17일 광주를 찾은 정세균 대표를 만나 항의의 뜻을 전했다.

박주선 “5·18 30주년 범국민 기구 설치될”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구)은 17일 “5·18 29주년

은 광주정신이 현장세대에서 역사세대로 전환되는 역사적 계기로 지나온 3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각계 인사가 참여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 30년 평가위원회’와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준비위원회’ 등 범국민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18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5·18 기념 세미나 특강에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5월 광주의 정신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2세대 광주정신 승화운동의 핵심적 사업이다”며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복구의회 전국 우수사례 최다 선정

○--광주 복구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활동 우수사례’ 선정 결과,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4건이 뽑혔다.

복구의회는 17일 김병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자치법규 연구모임’ 활동을 비롯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김상훈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이승희 의원),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홍인화 의원) 등 조례 제정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

경 찰

※합격시스템

6개월 과정	1년 과정	합격배출 1위 교수진	경 찰학 오 탄	수사 차주운
• 2개월 원성 3회 반복 학습	• 2개월 원성 6회 반복 학습	• 경 찰 영어 70% 합격률	• 신 경 찰 경찰학 개론 직강	• 강의경력 22년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폭력 짝이 쉽게 걷어	• 남부 경찰학원 전임	• 광주순천 메인 전임
• 수강료 50% D/C	• 수강료 50% D/C	• 강의경력 15년	• 광주대기감찰 학원 전임	• 광주대기감찰 학원 전임

주저하지 말고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경 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226-5050

저마다 합격의 예쁜 꿈들, 無等과 함께하면, “꼭”이뤄집니다!!

7.9級 공무원 **수직렬**

30.40 주부반모집합회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개강 5월 15일(주 야 겸행만 모집) (현재상당원수중)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대호온돌침대/가사갤러리

광주신세계백화점 특가판매

광주신세계 지하1층에서 만나십시오!

다호온돌침대/가사갤러리

돌침대도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돌침대-대호온돌나라!! 부모님 효도선물로 최고입니다.

두한족영 침대만?

신세계매장 : 062-360-1902

본 사 : 031-768-3259

www.ondolnara.co.kr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426번지